

2026  
올림포스  
문학

## 2026 올림포스 현대시 1-1 | 님의 침묵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님**(사랑하는 사람, 부처나 진리, 절대자 등을 의미함.)은 **갔습니다**(경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를 드러냄.)  
**아아**(이별에 대한 탄식. 영탄적 표현. 영탄적 표현이 나타남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푸른(색채어, 시각적 이미지)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떨치기 어려웠음  
에도 불구하고 떨쳐낸 느낌을 주며,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킴.) 떨치고 갔습니다. ]([ : 임이 화자  
를 떠난 상황)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직유법. 시각적 이미지.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던 사랑의 맹세. **표현상의 특  
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는 **차디찬 티끌**(황금의 꽃 같던 맹세가 티끌과 같이 변함.)이 되어서, 한숨의 미  
풍에 날아갔습니다. ]([ :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임과의 황홀한 추억. 촉각적 이미지)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운명을 바꿔놓  
고.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이별의 상황(기)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청각의 후각화)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 임을 향한 절  
대적 사랑. 역설적 표현. 대구법)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회자정리의  
사상)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임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충격과 슬  
픔)

▶ 이별 후의 고통과 슬픔(승)

**그러나**(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함. 임과의 이별 → 임과 다시 만날 기대와 기쁨. **‘그러나’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  
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슬픔의 힘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  
킴.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

▶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 새로운 희망(전)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회자정리 거자필  
반이라는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남. 재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 불교의 윤회 사상.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  
습니다.**)

**아아**(개달음의 정서. 영탄적 표현. 1행의 ‘아아’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1행의 ‘아아’와 9행의 ‘아아’는 모  
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영탄적 표현이지만 1행은 ‘슬픔’, 9행은 ‘개달음’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  
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역설적 표현. 이 시의 화자는 ‘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직설적  
으로 토로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초극하여 재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음. 역설법이 사용된 다른 작품을 제시하고 동일한 표  
현이 사용된 작품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객관적 현실은 임이 부재한 상황이나 화자는  
임이 침묵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결)

- 한용운, 「님의 침묵」

2026  
올림포스  
문학

## 2026 올림포스 현대시 1-1 | 님의 침묵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만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변형 문제

###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독백체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다가 후반부에는 대화체로 전환하고 있다.
- ③ 시상의 전환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④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며 접하는 풍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⑤ 시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당대의 세태 변화를 비판하고 있다.

#### 변형 문제

### 2.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른 산빛’: 임이 떠나간 이별의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 ② ‘한숨의 미풍’: 영원할 것 같던 맹세가 사라진 데 대한 허탈함을 비유한다.
- ③ ‘운명의 지침’: 임과의 만남이 화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 ④ ‘새 희망의 정수박이’: 슬픔을 극복하고 만남을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 ⑤ ‘사랑의 노래’: 임과의 이별을 수용한 뒤 느끼는 체념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 변형 문제

###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 문학 작품에는 비유와 아이러니가 사용 되는 경우가 많다. 비유는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 마음은 호수요’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심적 상태와 ‘호수’의 상태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아이러니는 유사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유사성의 부정이란 유사성이 아닌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극도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과 실제 의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

어니.’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 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에서 ‘맹서’와 ‘황금의 꽃’은 ‘굳고 빛나는’ 속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있군.
- ②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는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 행위처럼 표현한 비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는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결과가 함께 나타나므로 진술의 모순으로 인한 아이러니에 해당하겠군.
- ④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는 이별을 예견했음에도 뜻밖이라고 말하므로, 표현과 실제 의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아이러니로 볼 수 있겠군.
- 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지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군.

4. ㉠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이 떠나는 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부각한다.
- ②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임의 암시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완화한다.
- ③ 떠나는 임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매우 단호했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 ④ 쉽게 떨치고 떠나기 어려운 정(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떠났음을 암시하여 안타까움을 더한다.
- ⑤ 임이 떠나는 이유가 화자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자책의 심정을 드러낸다.

5. <보기>의 관점에서 위 시를 분석할 때, 주제 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구절은?

<보기>

역설(paradox)이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기법이다. 독자는 모순된 진술을 마주하며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능동적으로 사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

- 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 ②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 ③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 ④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6. 위 시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 a.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함.
- b. 동일한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 c.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냄.
- d.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① a, b
- ② a, d
- ③ b, c
- ④ b, d
- ⑤ c, d

9. <보기>는 위 시를 감상한 학생의 반응이다.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님’과의 이별이라는 슬픈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경어체를 사용한 여성적 어조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푸른 산빛’이나 ‘날카로운 첫 키스’와 같은 감각적 이미지는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줘. 특히 ㉢과거의 ‘황금의 꽃’과 현재의 ‘차디찬 티끌’을 대조하여 이별의 충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인상 깊었어. 또한 화자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이 떠난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마지막으로 이 시의 ㉤‘님’은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조국’이나 ‘진리’와 같은 추상적 가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해.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위 시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이 외부 풍경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며 점차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그러나’를 기점으로 임과 함께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체념과 달관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④ 임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과 절망감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과 의지적 기다림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가 교차되며 이별의 원인을 외부 세계로 돌리던 태도가 자기 성찰적 태도로 변하고 있다.

1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는 모두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② ㉡의 ‘아아’는 임과의 이별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탄식과 슬픔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의 ‘아아’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깨달음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④ ㉡의 ‘갔습니다’와 ㉣의 ‘갔지마는’은 모두 임이 떠났다는 객관적 사실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와 달리 ㉣에서는 임의 부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좌절감으로 바뀌고 있다.

12.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에서 ‘사랑의 노래’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러한 반전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도식을 만들어 보았다.

슬픔의 노래

→

사랑의 노래

↑

- “임이 떠났다고 눈물만 흘리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다.”
-

- ① 임과의 옛 맹세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 ② 만날 때 이미 떠날 것을 염려하고 갑작스런 이별에 대처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 두었다.
- ③ 이별의 슬픔조차도 임을 위한 것이라면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이별이 너무 빨리 다가왔듯이 임과의 만남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 ⑤ 만나면 떠나는 것과 같이 떠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13. 위 시에서 ‘~입니다’의 경어체 종결 어미가 주는 주된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임에 대한 화자의 존경심을 드러낸다.
- ②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의 어조를 형성한다.
- ③ 부드럽고 차분한 여성적 목소리를 느끼게 한다.
- ④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여 냉정한 분위기를 만든다.
- ⑤ 화자의 고백적 진술에 진정성을 더해준다.

【14~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14.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이해할 때, ‘님’의 함의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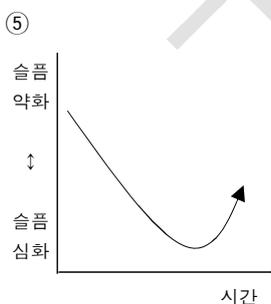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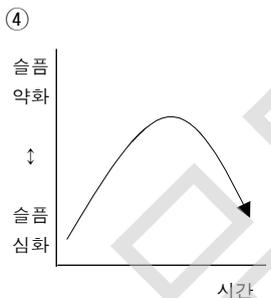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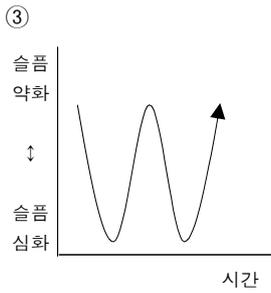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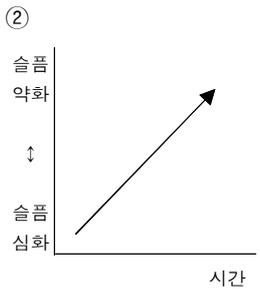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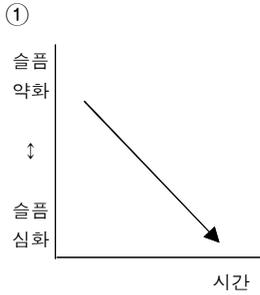
시인은 시집 『님의 침묵』의 서문인 ‘군말’에서 “님만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님이다. 중생(衆生)이 석가(釋迦)의님이라면 철학(哲學)은 칸트의님이다. (...)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고 밝혔다. ‘기루다’는 ‘그리워하다’의 옛말이다.

- ①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면 연인, 조국, 종교적 절대자 등 무엇이든 ‘님’이 될 수 있겠군.
- ② ‘철학이 칸트의님’이라는 구절을 보니, ‘님’은 한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나 이념을 의미할 수도 있겠어.
- ③ ‘어린 양’을 위해 시를 쓴다고 한 것을 보면, ‘님’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고 이끌어야 할 대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
- ④ 결국 ‘님’은 특정한 하나의 존재로 고정되기보다는, 읽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열린 상징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중생이 석가의님’이라는 관계처럼, 화자는 ‘님’을 자신보다 우월하고 위대하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만 설정하고 있군.

15.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 어미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심정을 표현과 의도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20.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의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서술형 문제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21. <보기>는 위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님의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한용운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굳건한 의지를 평생 잃지 않았다. 이러한 시인의 삶을 고려할 때, 이 시에서 노래하는 '님'과의 이별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건>

- ‘조국’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할 것.
- ‘~을(를) 상징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22. ㉠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23. ㉡의 바탕이 되는 생각으로,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의미의 한자성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24. 위 시에서 ‘그러나’라는 시어가 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전환되는 내용(정서 또는 상황)을 포함할 것.

25. ㉢와 ㉣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맹세’의 속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낼 것.

26. 마지막 행에서 화자의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화자의 ‘사랑’이 지닌 힘 또는 속성을 포함할 것.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27. ㉠과 같은 심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에 나타난 심상을 설명할 것.  
• ‘㉠은 ~(을)를 ~(으)로 ~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심상을 ~(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28. ㉡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29. ㉢와 ㉣가 각각 어떤 정서를 집약하고 있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와 ㉣의 정서를 모두 포함하여 대비시킬 것.

30. 이 시에서 이별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만남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화자가 가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O/X 문제

31. 이 시의 ‘님’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  
..... (O / X)

32. 이 시는 직유법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 (O / X)

33. 이 시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O / X)

34. 이 시는 ‘그러나’ 이후로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의 정서가 심화된다. .... (O / X)

35. 1행의 ‘아아’와 9행의 ‘아아’는 서로 다른 정서를 드러낸다. .... (O / X)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이 시는 전반부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절망(‘한숨의 미풍’, ‘새로운 슬픔’)이 7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재회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슬픔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님’이라는 청자가 있지만, 이는 화자의 내면적 대상일 뿐 명시적으로 말을 건네는 가상의 청자는 아니다.
- ②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 혼자 말하는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시선이 이동하며 풍경이 나열되기보다는, 화자의 내면 인식 변화가 시상 전개 중심축이다.
- ⑤ 시적 대상(님)에 대한 깨달음은 있지만, 이를 통해 사회상(세태 변화)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정답 ⑤

‘사랑의 노래’는 임이 부재하는 ‘침묵’의 상황을 이겨내고 임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를 체념의 정서로 보는 것은 시의 주제 의식에 어긋난다.

- 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떠나갔으므로 이별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 ② 맹세가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허탈하고 슬픈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라는 표현은 임과의 만남이 화자의 인생에 절대적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④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3. 정답 ④

화자는 이별을 미리 염려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별이 닥치자 그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뜻밖의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준비와 실제

충격의 차이를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아이러니(반어) 기법으로 볼 수 없다.

- ① ‘-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맹세’의 영원하고 고귀한 속성을 ‘황금의 꽃’에 빗댄 비유(직유)이다.
- ② ‘슬픔’과 ‘희망’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읊고 고 부을 수 있다고 표현한 비유로 볼 수 있다.
- ③ 감미로운 소리를 듣는데 귀가 먹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진술이므로 <보기>의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역설)에 해당한다.
- ⑤ **[매력적인 오답]** 임이 떠났다는 객관적 현실과 보내지 않았다는 주관적 의지라는 모순된 상황을 통해 이별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아이러니(역설)이다.

### 4. 정답 ④

‘차마’는 마음속으로는 꺼려지거나 안쓰러워 선뜻 행동하지 못할 때 쓰는 부사이다. 따라서 임이 정을 떨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떠났음을 나타내어,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① ‘차마’는 오히려 아쉬움과 미련의 정서를 함축한다.
- ② ‘차마’에는 재회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지 않다.
- ③ 임의 단호함을 보여주지만,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 있으므로 객관적 묘사와는 거리가 있다.
- ⑤ 자책보다는 이별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5. 정답 ⑤

‘님은 갔다’는 객관적 사실과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주관적 인식이 서로 모순되지만, 이는 이별의 슬픔을 의지로 극복하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역설의 정의에 가장 잘 부합하며 주제를 집약한다.

- 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배경을 묘사한다.
- ② 직유와 대조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이별을 예감했음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역설은 아니다.
- ④ 이별과 만남의 순환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구절로, 역설보다는 시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하는 생각의 바탕에 해당한다.

6. [정답] ④

b. '님은 갔습니다', '아아' 등의 시어 및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d.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청각을 후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표현이다.

a.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c. 이 시에는 표면과 속마음이 반대되는 반어법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모순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임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랑과 믿음의 정서가 주를 이룬다.

7. [정답] ⑤

위 시의 화자는 '그러나'를 통해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의지를 보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임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죽은 임에 대한 슬픔과 한을 격정적으로 토해내고 있다.

① 재회를 확신하는 것은 위 시의 화자이다.

② 임의 부재를 슬퍼하지만, 절망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보기>의 화자이다.

③ 위 시의 화자는 의지적 태도를, <보기>의 화자는 격정적 태도를 보인다.

④ 두 화자 모두 임의 부재를 담담하게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보기> 작품: 김소월, 「초혼」

- 주제: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을 잃은 처절한 슬픔
- 특징
  - 반어법을 통하여 슬픔을 승화시킴.
  - 반복, 영탄을 동반한 감정의 직설적 표출

8. [정답] ③

이 시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만남과 이별을 순환하는 과정으로 보는 불교의 '회자정리 거자필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지로 극복하고자 한

다.

②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려 한다.

④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희망으로 살아내려 한다.

⑤ 그리움을 넘어 실질적인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9. [정답] ④

화자는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 습니다'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이 떠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내면의 의지와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① 경어체(~습니다)를 사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여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 '푸른 산빛'(시각), '날카로운 첫 키스'(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③ 과거의 영원한 맹세를 '황금의 꽃'으로, 그것이 사라진 현재를 '차디찬 티끌'로 표현하여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이별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⑤ '님'은 연인, 조국, 부처, 진리 등 화자가 그리는 모든 가치 있는 대상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시어이다.

10. [정답] ④

이 시는 1~6행에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다가, 7행의 '그러나'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여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② '그러나'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재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나타난다.

③ 체념이나 달관보다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⑤ 이 시는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정답] ⑤

④는 임이 떠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좌절감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과 ㉡의 ‘아아’는 모두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 영탄법에 해당한다.
- ② 1행의 ㉠은 임이 떠나버린 절망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탄식이다.
- ③ 9행의 ㉡는 이별의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깨달음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감탄이다.
- ④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마는’ 등의 표현은 임이 화자의 곁에 부재한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정답** ⑤

윗글의 마지막 행을 보면, 화자의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은 ‘사랑의 노래’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또한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화자가 부르는 노래를 희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임과 했던 옛 맹세는 사라졌다.
- ② **매력적인 오답** 화자가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갑작스런 이별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가 임을 위해서 이별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화자가 임과의 만남을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별이 빨리 왔으므로 임과의 재회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정답** ④

경어체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존경심과 친밀감을 드러낸다. 따라서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가장 거리가 멀다.

- ① 경어체는 통해 상대방을 높이며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간절하고 소망스러운 어조는 기도를 연상시킨다.
- ③ 일반적으로 경어체는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로 해석된다.
- ⑤ 정중한 어조는 화자의 고백에 진실성을 부여한다.

14. **정답** ⑤

<보기>에서 ‘님’은 석가와 같은 절대자일 수도 있지만, 철학, 어린 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가 ‘님’을 자신보다 우월하고 도달 불가능한 존재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기룬 것(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라는 구절에서 타당한 추론이다.
- ② ‘철학’과 ‘칸트’의 관계를 통해 ‘님’이 추상적 가치나 이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인이 ‘어린 양’을 ‘기루어서(그리워하여)’ 시를 쓴다고 했으므로, 돌봄의 대상도 ‘님’에 포함된다.
- ④ ‘님’이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열린 상징임을 보여준다.

15. **정답** ⑤

이 작품은 역설법은 활용하였지만, 자신의 심정을 표현과 의도를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반어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 ① 이 작품은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습니다’의 경어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 ③ 이 작품은 ‘~습니다’의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④ 이 작품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와 경어체의 사용으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16. **정답** ⑤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모습은 임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